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기에, 깊은 마음의 상처속에서 유례없이 많은 시민들이 ‘정의(正義) 회복’을 크게 울리면서도 또한 평화롭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에게 감동하고 힘이 되어주는 시간들을 큰 인상(印象)으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외국 언론과 시민사회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없었던 일’이라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도 근념(勤念)하고 수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존경하는 인물’을 선뜻 대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가까운 시절까지 곁에서 자상하게, 때로는 매우 엄하게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이 계셨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고 세대의 차이를 넘어 국민의 가슴에 이 스승을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어떤 때는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러던 차에 ‘한국불교의 상징이자 시대적 아픔을 치유한 성철스님의 삶과 사상 · 깨달음과 가르침’을 정리한 『성철 평전』이 출간되어, 가슴 답답한 체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문에 연재될 때부터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여러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겠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멋진 책으로 만들어주어 망설임 없이 이번 설 선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불법에 무식한 일개 서생이 글자를 동원하여 고승의 생을 옮긴다는 것은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워보겠다는 어리석음이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철저한 자료 조사를 거치고 풍부한 사진을 곁들여서 스님의 진면목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고, 읽는 분들에게는 마치 스님을 직접 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청정비구의 외길을 걸으며 평생 누더기를 걸친 채 ‘부처님 법대로’ 사셨던 스님의 삶은 어느 한 순간도 우리들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설날은 모두가 즐거움을 만끽해야 할 명절입니다. 옛말 그대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갈등과 분열보다는 국민 화합을 가져오고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지혜롭고 너른 마당이 되길 기원하며, 우리 종단도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丁酉年 설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